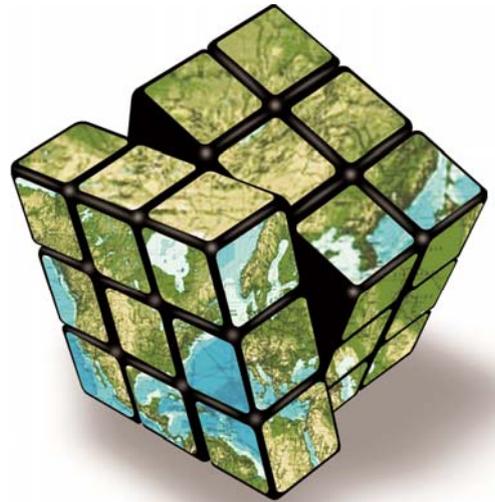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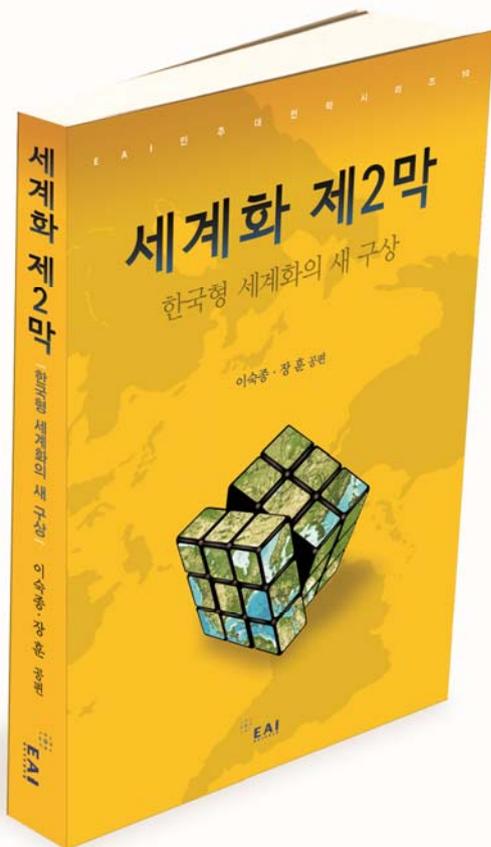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세계 속의 한국, 세계화를 관리하라



반응적 · 제한적인 제1기 세계화를 넘어
21세기 성찰적 · 복합적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건강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문 중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Toward Managed Globalization:
The Korean Experience*

편저자_ 이숙종 · 장 훈 공편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_ 2010년 11월 26일

가 격_ 15,000원

ISBN 978-89-92395-12-0 93340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세계화, 미국, 케인즈 : ‘세계화’를 다시 생각하다”

2008년 전 세계는 미국 발 경제위기의 깊은 침체에 되었다. 이 때 우리가 매일 같이 접했던 것은 연일 가파르게 뛰어 오르는 환율 변동의 숫자나 자유 낙하하는 주식시장의 그래프였다. 80년 만에 찾아온 깊은 위기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줄곧 떠오르는 낱말은 세 가지였다. 세계화, 미국, 케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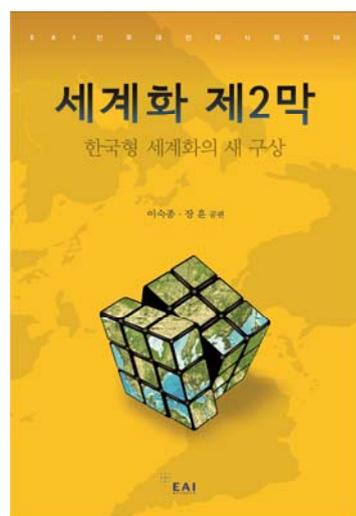
이 책은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류와 케인즈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다시금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세계화를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합적인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고 적절한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세계 속의 한국”이 발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 세계화 전략, 제2막이 열린다”

한국 세계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절 제1기 세계화는 변화하는 바깥 세계의 표준을 따라 잡으려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여러 정책에서 상당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의 빛을 보지 못했다. 당초의 제도·의식·문화개혁의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에 기초한 경제의 세계화정책은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뒤이은 IMF 구제금융사태로 귀결되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타격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미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설켜 한 지점을 타격한 충격이 고리와 고리를 타고 전지구로 충격이 확산되었다. 비단 그 결과는 경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발전과 번영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이 주춤하였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현실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오던 미국의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화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모방하기에 급급한 세계화전략으로는 발전과 번영을 약속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은 G20의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1기 세계화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무역의 수출량 7위를 기록하는 경제대국이며 아시아지역 한류를 불러 일으킨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추종적이고 반응적인 세계화에서 벗어나 안과 밖의 변화를 이해하고 내외의 긴장을 살피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세계화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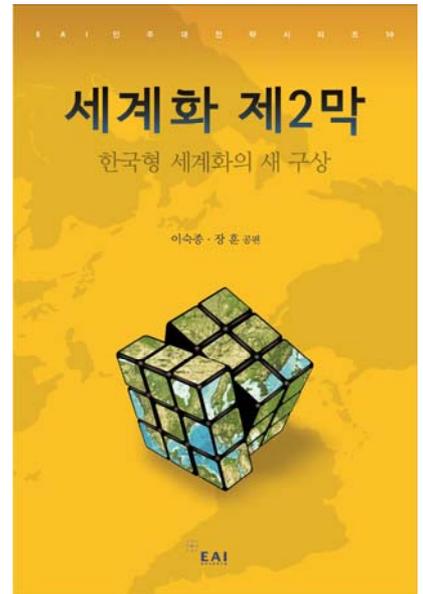
“관리된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 건강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은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제1기 세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1세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난 세계화전략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진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국 세계화의 주요 이슈가 되는, 정치, 외교 및 안보, 경제, 사회, 시민권, 에너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책은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미래 한국을 위한 제2막을 열고자 한다.

- **세계화 논쟁과 경험적 분석**_ 세계화의 기본 개념과 다차원적인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세계화 현상 자체를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해하여 세계화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점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표를 소개한다.
- **세계화 시대의 정부 역할**_ 세계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검토한다. 세계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본질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가 한국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창조적인 적응, 그리고 세계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세계화와 안보**_ 세계화와 함께 확대된 국가 간 교류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논의한다. 다자주의 안보질서 및 제도를 결여하고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에 필요한 안보질서 및 다자협력 체계는 무엇인지 모색한다.
- **세계화와 한국 경제**_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성장하고 변모해온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나아가 세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분석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경제 운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전면적인 비판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사회통합**_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사회 통합의 이면에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추세 및 소득 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심리적 박탈감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2009년 9월에 함께 실시한 “한국 중산층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국민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 **세계화와 시민권의 변용**_ 세계화가 한국 시민권 개념과 1990년대 이후 시민권 제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살펴본다. 시민권에 대한 두 관점인 글로벌리스트와 회의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국가주권, 통치성, 민족정체성의 작용으로 새롭게 변모할 국민국가의 역할을 모색한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_ 지난 수년간 세계화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논의의 기원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부각이 한국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그리고 능동적인 세계화의 대응에 가지는 함의를 알아본다.
- **세계화와 건강**_ 세계화는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간 정보 및 정책 교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종 전염병, 비만,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건강위해를 가져왔다. 세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 목 차

- 1장 반응형 세계화에서 성찰의 세계화로 : 한국형 세계화론의 기원, 쟁점, 과제 | 장훈
- 2장 세계화 논쟁과 경험적 분석 | 이숙중·이근수
- 3장 세계화 시대의 정부 역할 | 이승주
- 4장 세계화와 안보 | 전재성
- 5장 세계화와 한국 경제 : 금융 부문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 강석훈
- 6장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사회통합 | 이숙중
- 7장 세계화와 시민권의 변용 | 이철우
- 8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재승
- 9장 세계화와 건강 | 정연·권순만



□ 필자 약 력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공익위원,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국가정체성과 나라경제 바로 보기》, 《한미FTA 대한민국보고서》, 《미래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등의 공저가 있으며, “개방화, 기술진보와 노동 소득 분배율”,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수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등의 논문이 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워튼스쿨(Wharton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한국보건경제학회 부회장과 한국노년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의 자문관으로 아시아 20여개 저소득국가 정부에 보건의료정책 자문을 맡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BK 노인보건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이고,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Social Science and Medicine* 등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곤수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현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과 서울행정학회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대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분야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s”(2010 발간예정),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지방분권화와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등이 있다.

이숙중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강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거버넌스와 여론 연구, 시민사회, 정치경제 등이며, 한일신시대위원,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The Demise of ‘Korea Inc.’: Paradigm Shift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Coed., Palgrave, forthcoming), “The Assertive Nationalism of South Korean Youth: Cultural Dynamism and Political Activism,” “Japan’s Changing Security norms and Perceptions Since the 1990s” 등이 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버클리대의 Berkeley APEC Study Center(BASC)의 박사후연구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과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2010 발간 예정)을 공동 편집하였으며,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한국정치학회보> 등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예일대학교 및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 왔다.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유럽, 동아시아,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 에너지 안보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의 에너지·자원·환경센터 소장과 코리아 에너지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술로 “Energy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U’s Green Energy Strategy: The Policy Response to Reward Energy and Climate Change” 등이 있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조지타운 법과대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석사학위(LL.M)를,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법사회학과 시민권 및 국제이주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2010), “The Rule of Law and Forms of Power”(2009), *Modernity, Legality and Power in Korea Under Japanese Rule*”(1999) 등이 있다. 학술지 <법과 사회>의 편집위원장과 한국이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민주주의재단 레이건-파셀 펠로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그리고 한국 국제정치학회 편집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20년의실험 :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한국의 디지털정당》 (공저),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프랑스 드골대통령의 자주외교연구”, “강대국의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등이 있다.

정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보건대학원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저작으로 “소득 수준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대별 차이”, “모친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치아우식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등재가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Global Recession on the Health of the People in Asia,”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Impacts and Responses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ed. Bauer and Thant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PUBLICATIONS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근간)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근간)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